

科學技術學會 活動 略史

3

大韓數學會 篇

韓國數學 30년의 足跡을 더듬어 보기 위하여 대체로 다음의 要項과 順序로 고찰하고자 한다.

1. 年代記의인 經過의 大略
2. 數學教育을 중심으로 한 過去와 現在
3. 學會의 結成과 發展
4. 研究誌의 發刊狀況

끝으로 現時點에서의 本學界의 抱負와 이에 따른 몇가지 提言.

1. 年代記의인 大略의 經過

현대적 意味의 韓國 數學은 1945년 光復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다음해인 '46년에 京城大學에 數學科가 신설되고 延禧專門의 數學科가 整備되었다. 이때부터 다시 서울대학에는 師大에, 延大에서는 物理學科와 數學科가 분리하고 大邱師大에 數學科가 신설되어 전국에 4~5개의 數學 전공의 科가 설립되었다. 6.25 動亂 이후 休戰期에 접어들면서 私立大學 및 地方국립 綜合大學校의 창설과 더불어 近20個 學科가 발족하였으며 '60년대 후반부터 大學교육 재정비정책에 따라 大學의 數學科는 師範大學 소속의 數學教育科로 분리되어 '70년대에 접어들면서 數學科 21, 數學教育科 역시 21의 括目할 만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2. 數學教育을 중심으로 한 過去와 現在

여기서는 주로 中等數學教科書의 편찬 과정을

살펴 보기로 한다. 光復後 學制는 6년제로 되었다가 다시 現행의 中學校, 高等學校 各 3년제로 분리됨에 따라 教科書 역시 各 期別로 大別하면

제 1기(1946~1952) :

美 軍政庁의 編修局이 중심이 되어 6년제 中學校의 교과서가 檢定制로 編纂되어 사용되었다.

제 2기(1953~1960) : 中, 高 各 3년 的 學制 변경으로 제 2차 檢定교과서가 편찬되었고 이 시기에 文敎部의 教科課程審議委員會가 겨우 제대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 3기(1960~1965) : 소위 人工衛星 발사에 자극을 받은 美國의 數學教育 개혁운동 특히 S.M. S. G 등의 운동에의 여파로, 歐州와 日本 등지에서 數學教育 개혁은 직접적으로 教科課程 및 教授要目에 큰 변혁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新 教授要目이 제정되어 이에 따른 제 3차 檢定교과서가 편찬되었다.

제 4기(1965~) 5.16 혁명을 거쳐 社會적으로 변동기 또는 재건기에 접어들었으나 教科書 改編은 여러번의 논의를 겪다가 그 개편작업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규모의 校正, 修正 정도로 미루어 오다가 1978년에 제 4차 檢定教科書로서 現행의 中·高교 수학 교과서가 개편, 시행중에 있다.

이상 우리나라의 中等 數學교과서는 평균 8년에 한 번의 개편을 보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나 선진 각국에서의 평균 5년에 비하면 그 適應度가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내용면으로 검토할

때 주로 日本에서의 敎課 改編의 여파를 심히 영향받고 있음을 시인치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으나 앞으로 文敎부의 編修局 또는 보다 적절한 기관이 있으면 그 곳에서, 또는 그렇지 못하면 그러한 機構를 만들어서 보다 자주적인 안목을 갖고 敎科書行政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3. 學會의 結成과 發展

初創期 大韓敎學會가 任意단체로 결성된 것은 1946년 서울에서 당시 서울大學 敎授 故 崔允植博士의 제의로 처음에는 朝鮮敎學會로 출발하여 회원 약 40명이 참가하였다. 左, 右의 對立이란 사회적 혼란은 학계에도 밀어 닥쳐 物理學會, 數學會로 분리되었으나 본격적인, 學會다운 활동은 거의 볼 수 없었다. 6.25동란이 일어난후 避難地 釜山에서 1952년에 大韓敎學會를 재건하여 崔博士가 初代會長으로 피선되고 그 당시의 회원수는 약 50명이었다.

그러나 이 동란 시기에는 다른 학회도 다 그러했듯이 本學會 역시 이렇다할 활동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회원역시 당시 피난중인 10여명의 敎授와 대부분이 釜山시내의 中, 高敎師로 구성되었다.

제법 學會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겨우 1957년 이후의 일이라 하겠다. 이때부터 總會 및 研究發表會를 春, 秋로 갖기로 하여 1958년부터는 춘계는 서울에서, 추계는 지방에서 교대로 개최키로 하여 지방으로서는 처음으로 大邱의 慶北大學校에서 총회가 개최되어 15편의 論文과 3편의 講演이 있어 활기를 띠었다. 그러다가 곧 4. 19를 맞고, 또한 崔允植會長의 作故로 학회는 일시 침체에 빠지고 연이어 5. 16직후의 各社對 단체해산 명령에 따라 거의 활동을 볼 수 없다가 1963년 學術團體 登錄整備에 따라 故 張起元(二代)會長 명의로 大韓敎學會會則을 작성하여 임의 단체로 등록하였다. 이때의 會務는 禹聲九(故人), 李禹翰, 朴漢植이 常任理事로 전담하였다.

이후 1965년에는 延世大에서, '66년에는 光州 朝鮮大學에서 총회 및 研究 발표회를 갖다가 이해

에 張會長의 別世로 朴敬贊(三代) 회장이 취임하고 '67년에는 서울大(工大)에서, '68년에는 釜山大에서 각각 총회와 발표회가 있었다.

(分科委構成, 學會誌發刊)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68년도 發表會부터 分科別委員會를 둘것을 가결하고 다음과 같이 4. 分科를 두고 있다.

第1分科 代數學

第2分科 幾何學

第3分科 解析學

第4分科 數學敎育

그러나 현재는 topology分科, 統計數學分科, 應用數學分科로 더 細分하여 7個分科로 나뉘어져 있다.

또 이해에 科學技術處에서 學會補助金 30萬원을 지급한다는 통고가 있었다. 이 支援金은 당시의 본학회의 아래와 같은 會計報告에 미루어 볼때 그 막대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但, 會誌제작비는 당시 “數學”誌 년1회 약 40면 제작비의 일부이고 회원은 100명 미만, 회비는 년 300원이었다.)

1968년도 會計報告

總收入	45,351.00 원
支出	44,930.00 원
總會開催費	32,700.00 원
常任理事會議費	2,130.00 원
技術團體會費	4,500.00 원
會誌製作費(一部)	4,000.00 원
會員카드作成費	600.00 원
交通費其他	1,000.00 원
殘金	421.00 원

이어서 '69년에는 檀國大學에서 모임을 가졌고, 다음 1970년에는 大田, 忠南大에서 總會가 개최되어 金正洙씨가 4대 회장으로 피선됨을 계기로 학회에 新風이 일기 시작했다. 金회장은 私財를 털어가며 “會誌”와 “會報”의 간행에 힘을 써서 오늘의 기틀을 잡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 時期부터 학회는 대외적으로 문을 크게 열어놓은 양상을 띄게 되었으며, '71, '72년은 특히 다채로운 행사가 많았다. 重要사항만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海外交流 활발〉

Bodo Volkmann 박사와의 Seminar : Theory of Hausdorff Measure. ('71. 3. 30서울대)

Wade Ellis 박사의 초청강연 : 미국대학에서의 수학교육. ('71. 4. 13, 14. 이대, 연세대)

Hideyuki Matsumura 박사와의 Seminar : Development of Algebraic Geometry ('71, 7. 5. 서울대)

Dock Sang Rim 박사의 초청세미나 : Introduction to Algebraic Geometry ('71. 7. 6~9. 서울대)

Dock Sang Rim 박사의 초청세미나 : Deformation of Singularity ('71, 7. 12~15. 서울대) 위의 D. S. Rim (林德相) 박사는 代數幾何學 분야에서의 세계적인 韓國人·數學者로 유명하다. 1969년에는 불란서 정부의 초청으로 파리대학에서 유명한 Grothendieck와 공동으로 該分野에 큰 업적을 올린바 있는 쟁쟁한 數學者이다. 林博士의 소개로 上記 Matsumura 박사도 내한하여 같이 세미나를 가졌었고, 또 세계적인 Fields賞 수상자 H. Hironaka (広中平祐) 박사도 1972년 3월말에 來韓하여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각각 Algebraic Geometry에 대하여 강연하고 특히 그의 得意의 분야인 Singularity의 resolution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청중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이후 본학회는 발전을 거듭하여 1976년에는 창립 30주년의 紀念的 學術大會를 서울大學校에서 갖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微分幾何學의 K. Yano 등을 위시하여 많은 국가의 數學者들이 내한하여 공동Seminar를 갖기도 하고 後記하는 바와 같이 학술적인 많은 성과를 會誌 및 會報에 기록하게 되었다.

1974년 金正洙회장은 連任을 끝냈고 朴乙龍씨가 5대회장에 피선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78년 成均館大學校에서의 총회에서 “社団法人 大韓數學會”로 발전적인 개편이 결의되어 '79년 현재 主務部 勉인 科學技術 勉의 인가를 받게 되었다.

이로서 本學會는 總會, 會長, 理事會와 12명의 支部 및 中央理事를 갖는 명실상부한 학회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韓美數學워크샷'79開催〉

끝으로 본학회는 작년에 해방후 가히 처음이라고 할 만한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공동으로 “韓美數學 워크샷 '79”라는 이름아래 國外에서 H. Hironaka (Harvard Univ.) F. Raymond (U. of Michigan), F. Treves (Rutgers Univ.) Dock S. Rim (U. of Pennsylvania), K. W. Kwun (Michigan St. Univ.) C. N. Lee (U. of Michigan), B. Y. Chen (Michigan St. Univ.) 등을 위시하여 함께 11명이 초빙되고 國內에서 약 150명의 수학자가 참가하는 一大學術的 대행사인 것이다.

편의상 代數學, 解析學, 位相幾何學, 微分幾何學 등의 分科로 나누고는 있으나 이들을 종래의 分野別 細分化 경향을 지양하고 보다 大域的인 견지에서 소위 大單位 연구의 역량을 함양하고 세계 數學界와 정보 교류의 신속을 기하여 共同研究의 경험을 통한 우리나라 수준의 향상을 꾀한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이다.

酷暑를 무릅쓰고 夏季의 이 워크샷에 참가한 國內의 여러 인사에게 이런 기회를 빌어서 그 노고와 성과에 대하여 致賀하여 마지않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서울대학교 당국과 한국과학재단에게 무한의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와 유사한 형식과 규모의 행사를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4. 研究誌의 刊行 狀況

우리나라의 學術誌(數學關係)의 시작은 1959년에 慶北大學校에서 朴鼎基 교수를 主幹으로 출발한 이른바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을 들 수 있다. 이 雜誌는 초기에는 원고 不足, 재정 빈곤 등으로 허다한 난관을 극복치 않을 수 없었으나 현 1979년에는 Vol. 19, No. 1까지 꾸준한 刊行 실적을 쌓아 세계적으로 알려진 主要定期雜誌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國內 數學者의 논문은 물론 美, 日, 加, 印 등 여러나라의 國外 數學者의 논문이 오히려 더 많이 게재되는 면도 없지 않다. 이자리를 빌어서 朴교수의 多年의 노력에 대

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大韓數學會는 1950년대에는 “數學教育”이란 題號로 등사版 잡지를 발행하였으나 특기할 만한 것이 없고, 1964년부터 “數學”이란 題號로 매년 1회, 4~5편의 논문을 게재하기 시작하여 오다가 1969년부터 이를 발전적으로 二分하여 논문위주의 大韓數學會會誌(英名: Journal of Korean Mathematical Society)와 發表會 論文, 記事, 討論會 記事, 論說 등을 위주로 하는 大韓數學會會報(英名: Bulletin of K. M. S.)를 각각 년 2회 출간하기로 되어 여기서 一大飛躍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둘은 각각 “회지”, “회보”로 略記되며 前者는 靑色, 後者는 黃色의 表紙色으로 지금은 회원에게는 물론 국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靑色の 會誌는 歐文誌이며 독창적인 논문에 한하여 編輯委員會 내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그 게재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외에서도 그 질적 수준이 높게 평가되어 왔으며 외국의 저명 數學者의 寄稿가 부쩍 는 것이 근래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編輯委員會는 趙泰根(서강大), 嚴相奩(성균관大), 金致榮(연세대), 金宗殖(서울大), 金容雲(한양大), 尹在漢(서울대)의 諸氏이며 朴勝安(서강大)博士가 委員長이다.

會誌는 550부를 인쇄하여, 이 중 350부가 회원에게 배포되고 약 80부가 외국의 각대학 학회와 교환되며 20부는 국내主要機關에 기증되고 나머지는 보관용이다.

1979년 가을로서 본학회의 會誌, 會報는 誌齡이 겨우 Vol. 16, No. 1을 헤아리게 되지만 질적인 향상은 괄목할 만 하다고 할 것이나 앞으로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임은 두말 할 나위없다.

5. 研究誌 刊行支援 時急

이상 간단히 약30년간의 足跡을 더듬어 보았거니와 끝으로 몇가지 제언을 할까한다. 前術한 바와 같이 1960년대 말만 하더라도 학회는 상상키 어려운 근소한 예산으로 운영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會長을 위시하여 常任理事들의 財政的 희생에 업혀서 이끌어 나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때에도 科學技術團의 補助金은 상대적으로 큰 도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매년 5萬원씩 감소되어 차차 이 補助金마저 실질적인 意義를 잃어 갔던 것이다.

한 學會의 活動의 결과는 곧 會誌로써 평가되는 것이 당연함에 비추어 볼 때, 현재 年二回, 합계 四卷의 會誌 및 會報의 總 發刊費는 약 400萬원에 가까운 형편인데 學會의 정상적 會費 수입은 고작 년 120萬원 정도이며 이것에서 經常費가 나가면 그의 半額이 남을 정도인 것이다. 다행히 1979년도에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를 통하여 통고 받은 支援金중 會誌發刊支援金은 90萬이 되어 있으나 필요한 액수에는 요원한 상태이다. 학회의 임원들 및 회원중의 篤志家의 厚意에 기대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일이고 보니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會費의 대폭인상도 한가지 방법은 되겠으나 관계 요로의 數學과 같은 순수 科學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커가기를 진심으로 빌어 마지 않는다. 더구나, 개개數學者의 研究費支援에는 상당한 진전이 보이는 현시점에서 볼 때, 이 연구결과를 수록하여 出刊함으로써 국내의 상호 정보 교류에는 물론 國外的 各大學, 各機關, 各 研究者에게 널리 교류, 교환되고 있는 研究誌의 刊行에 대한 지원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음을 강조하는 바이다.

